

‘자비의 쌀’ 등 3000만원 전달

양산 통도사 불우이웃 300여 세대 후원

양산 통도사(주지 정우)는 화엄산 립대법회 회향을 맞아 지역 불우이웃 300여 세대에 3000만 원을 후원했다.

통도사는 구립 26일 양산시 시장실에서 ‘자비의 쌀 전달식’을 개최하고, 양산 지역 내 경로당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에 쌀과 후원금 등을 전달했다. 경로당 240 곳에는 쌀 240가마와 밀치 240포를 전달하고,

소년소녀가장 72세대에는 2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총 3000 만원을 전달했다.

정우 스님은 “어려운 사회여건 속에서 작은 정성이 불우한 이웃들에게 전해져, 조금이나마 따뜻한 웃음을 지을 수 있길 기원하며 통도사 사부대중 모두의 마음을 담았다”며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53일의 구법여행 화엄산림

대법회는 같은 날 통도사 설법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문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8년 11월 4일 입재 이후 구립 26일 회향법회까지 53명 대덕 큰스님으로부터 하루 평균 3000여 명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사회에서 깨달음을 위한 수행정진에 관한 법문을 들었다. (05) 382-7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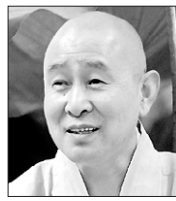
박지원 기자

“출·재가 합심해 한국불교 중심으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 부산불교신도회 · 부산불교실업인회

부산지역 불교단체들이 2009년 을 맞아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밝히며 힘차게 첫 출발을 했다. 출가와 재가가 합심해 부산불교 증흥의 원일 회향법회까지 53명 대덕 큰스님으로부터 하루 평균 3000여 명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사회에서 깨달음을 위한 수행정진에 관한 법문을 들었다. (05) 382-7007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정여·사진)는 2009년 을 맞아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밝히며 힘차게 첫 출발을 했다. 출가와 재가가 합심해 부산불교 증흥의 원일 회향법회까지 53명 대덕 큰스님으로부터 하루 평균 3000여 명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사회에서 깨달음을 위한 수행정진에 관한 법문을 들었다. (05) 382-7007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회장 정여·사진)는 2009년 을 맞아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밝히며 힘차게 첫 출발을 했다. 출가와 재가가 합심해 부산불교 증흥의 원일 회향법회까지 53명 대덕 큰스님으로부터 하루 평균 3000여 명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현대사회에서 깨달음을 위한 수행정진에 관한 법문을 들었다. (05) 382-7007



불교가 한국불교의 중심으로 우뚝 서도록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연중행사였던 부산시민연중축제와 팔관회를 부산세계등축제 및 세계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를 각각 발전시켜 세계인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대표 불교문화축제로 발돋움 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지난 해 중구편향과 훼손도 얼룩졌던 교편의 수호도 강조했다.

연합회는 “부산불교교편수호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산불교연합회와 부산불교연합신도회가 합심해 부산을 넘어 한국불교의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며 의지를 표명했다.

창립 42주년을 맞는 부산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사진)는 “8대 주교 사업을 선정해 포교 신행 교육 복지 봉

사 국제 교류 등 모든 영역에서 부처님 정법을 구현 하겠다”고 밝혔다. 부산불교신도회의 신년 계획은 그동안 교계의 관심이 소홀했던 환경 및 국제 교류 분야 등 다양한 사업계획들을 폭넓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복지·환경 분야에서는 생명환경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찰생태탐험대를 창단해 생태관련 단체와 꾸준한 연대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해 연말 자비의 쌀 나눔을 시작으로 자원봉사 인증센터를 마련하고, 위가정지원사업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기존 교계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도 확충된다. 특히 국제교류 분야로도 발을 넓혀 동남아시아 학교 및 의료센터 건립 지원, 대학생 해외자원봉사단 파견 등 해외사업도 기대해볼만 하다.

은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침체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극복해 더욱 의연하게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또 매월 개최했던 전구순회법회를 활성화해 명산대찰과 고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통해 존경받는 불자 사업가의 소양을 기르고, 기업인을 위한 기본교리 과정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신행 활동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부산불교방송 개국, 장학사업, 특기노인 지원 등을 통해 전법 활동을 꾸준히 펼쳐 지역 사회의 존경을 받아온 부산불교실업인회는 앞으로 부산불교실업인회의 100년 대계를 부산불교의 발전을 위해 당당하게 앞장설 계획이다.

부산지역 불자실업인 모임 부산불교실업인회(회장 김유환·사진)는 올해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침체를 부처님 가르침으로 극복해 더욱 의연하게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또 매월 개최했던 전구순회법회를 활성화해 명산대찰과 고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통해 존경받는 불자 사업가의 소양을 기르고, 기업인을 위한 기본교리 과정을 신설해 보다 체계적인 신행 활동을 준비 중이다.



박지원 기자

환우 위한 위문 음악법회 열려

죽림정사 등 준비해

세모의 마지막 토요일,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법향 가득한 음성공양의 마당이 펼쳐졌다.

부산 죽림정사(주지 각원)와 부산경남포교사단은 구립 27일 동의의료원 7층 대강당에서 환우들을 위한 위문 음악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에 참석한 환우 200여 명은 자비실현합창단, 사물놀이, 동대학

춤, 경기민요 메들리, 벨라덴스, 트로트 메들리, 각원 스님 법문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 11번째 행사가 된 위문법회에는 그동안 반송 원오사(주지 정관), 수덕사(주지 법민) 등 여러 사찰의 스님들이 초청법사로 함께 했다. 또 광양병원 및 순천군법당에서 위문법회를 통해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각원 스님은 법문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많이 힘들겠지만 부처님 가



구립 27일 부산 동의의료원에서 열린 위문 음악법회.

트침으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고통을 극복하라”고 격려했다.

박지원 기자

장애인가정돕기 지원금 전달

대한불교선교종, 총 60가구 30만원

대한불교선교종(종정 혜종)은 구립 29일 부산일보 강당에서 ‘제7회 부경,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가정 돕기 지원금 전달 대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혜종 스님(선교종 종정)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발원문 낭독, 대화사, 수명자 공명, 지원금 전달식, 법어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의 후원 대상 장애인가정은 부산시 55가구, 경남 밀양시 5가구로 총 60가구에 각 30만원씩 180만원 후원금이 전달됐다. 지원금 전액은 외부 후원 없이 선교종 스님들이 직접 마련했다.

혜종 스님은 법어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등에서는 하루 수십여 명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다”며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알고 나보다



대한불교선교종은 구립 29일 장애인가정 지원금을 전달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자비와 배려의 마음을 갖자”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불교선교종은 2001년부터 환경미화원 포상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장학금 전달, 우수 경찰관 포상 등 사회복지 실현과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매년 이웃돕기 행사를 열어 왔다. (05)462-6181

박지원 기자

전통등 강좌

매년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를 앞두고 서울경기지역에서만 개설되던 전통등 만들기 강좌가 부산에서 첫 선을 보인다.

홍법사(주지 심산)는 1월 14-16일 청림청년회 주관으로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를 개최했다. 강습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첫날 구조물 만들기를 시작으로 둘째 날 배접, 셋째 날 차색 순으로 진행된다.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대나무 살을 휘어 골조를 만들고 한지로 면을 붙여 완성하기까지 전과정을 배울 수 있다. 8-10명 호환미화원 포상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장학금 전달, 우수 경찰관 포상 등 사회복지 실현과 불국정토 구현을 위해 매년 이웃돕기 행사를 열어 왔다. (05)1508-0345

박지원 기자

광주사암련 회장 성오 스님

“광주불교는 빛의 도시가 아닌 지혜의 고을입니다. 지혜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립 23일 광주시민회관에서는 (사)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이 거행됐다. 1000여 사부대중이 참여한 행사에서 성오 스님(사진)은 제1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스님은 “호남은 구산선문의 전통을 가진 한국불교의 종가로 전국에서 불교적 밑거름이 가장 좋다”며 “호남지역 불교는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성오 스님은 호남불교 증흥을 위 명으로 이뤄진 1개조가 작품 1점을 완성하게 되며 참가비(강사비 및 재료비) 일체는 각 조당 150만원이다. 2009년 봉축 연등축제를 일찌감치 준비하는 사찰들의 호응이 높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한해 돌아보고 새해 맞이하고

조계종 대전 전법도량 백제불교회 관(관장 장곡)은 구립 26일 백제불교회관 대법당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는 충남도청불자회, 대전충남지방경찰청불자회, 운봉면 등 40여개 신도단체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한해를 뒤돌아보며 새해의 새로운 다짐을 했다.

장곡 스님은 “마음이 곧 부처(即心是佛)라는 가르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움츠리지 말자”며 “기업인 등은 진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생업과 깨달음을 한 생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진욱 회장(백제불교회관 신행단체협의회)은 “지역의 불교를 주도하는 백제불교인이 되자”며 기도 정진하는 불자가 되기를 당부했다. “사제동 화장(백제불교문화대학)은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감하고 돈세상이 아닌 인정이 넘치는 불자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혜철 총청지사장

“전북불교 증흥 주역 되자”

김제 불교인 송년의 밤 열려

전북 김제지역 불자들이 구립 29일 김제시청 강당에서 무자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도약을 다짐하는 ‘김제 불교인 송년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는 금산사주지 원행 스님을 비롯해 제17교구 김제지역 말사스님, 김제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이견식 김제시장, 경은원 김제시의회의장, 권두삼 김제불교회 관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회에서 추진위원장 송현 스님(김제 조양사)은 대화사를 통해 “김제 불교인의 앞날에 더욱 힘차고 큰 영광이 함께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한다”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이 지역



구립 29일 김제시청 강당에서 송년의 밤을 개최하고 전북 불교 증흥을 다짐한 전북 김제지역 불자들.

불자들의 힘을 모으면 전북 불교 증흥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허물은 남김없이 바로 참회함과 더불어 전법과 포교 대화회에 앞장 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회에 앞서 지역 불자가수들의 공연과 김제 보리수 합창단의 축하와 경품추첨 단전이 펼쳐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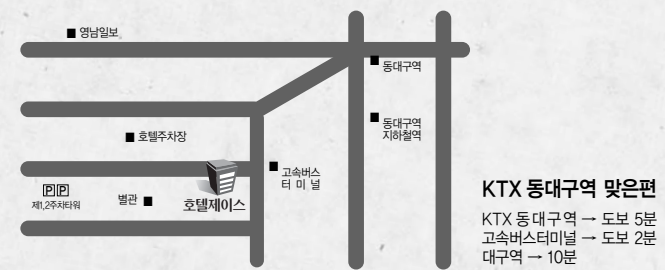
초대 종정 취임과 국가와 민족의 화합 기원대법회

초대의 글

석정관 대중사께서 생활불교의 등불을 드높이 드시고 온 우주와 천지의 중생속에 법의 빛이 되어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염원하며 불법의 소임을 알리는 장을 열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격려해 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봉행위원장 : 도선
 집행위원장 : 보광
 부위원장 : 청강 태룡 명허 홍재 선학
 아도 원행 원응 석문의공
 체법 법경

- ◆ 일 시 : 2009년 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불기 2552년(음) 12월 20일)
- ◆ 장 소 : 동대구 제이스호텔(3층 그랜드볼룸홀) 대구 동구 신천 4동 326-1 053)756-6601~10
- ◆ 연락처 : 011-601-6378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합장